

대학교수는 놀고 있는가

박찬길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

지난 3월호에서, 『깊은 지식인,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기획으로 IMF에 침묵하는 우리나라의 지식인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왜곡된 대학정책이 정상적인 연구활동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편집자주>

대학이 자본의 논리를 따른다?

대학을 가지고 있는 한 재벌총수가 실무자를 불러 물었다고 한다. “교수들은 수업을 얼마나 하나?” 실무자가 “9시간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한다. “하루에?” 필자도 전해들은 얘기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대학 교수들의 자조적 농담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요즘 대학을 둘러싼 사회일각의 비판적 시각도 기본적으로 그 재벌총수의 의구심과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진다.

최근 일련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학교수들의 ‘확인되는’ 노동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9시간에 불과하면서도, 그나마 수업도 없는 방학 때까지 월급은 꼬박꼬박 다 타고, 그런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을 보면 세계적 학술지 게재 편수에 있어 아시아에서도 처지는 형편이며, 연구는 안하면서 교수 신규임용시에 뇌물을 주고받거나 자기 사람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실업자가 2백만에 육박한다는 IMF 시대에도 65세까지 안락하게 정년을 보장받는다라는 것

인데, 이런 얘기를 듣는 보통사람들은 ‘아,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몇억씩 들여가면서도 대학교수 노릇을 못해 난리들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는 언론의 해법은 예외없이 ‘경쟁력있는’, ‘소비자중심’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교수 개개인의 경쟁력은 물론 대학 간의 경쟁력도 엄정하게 측정해 공표함으로써 ‘구태에 젖은’ 대학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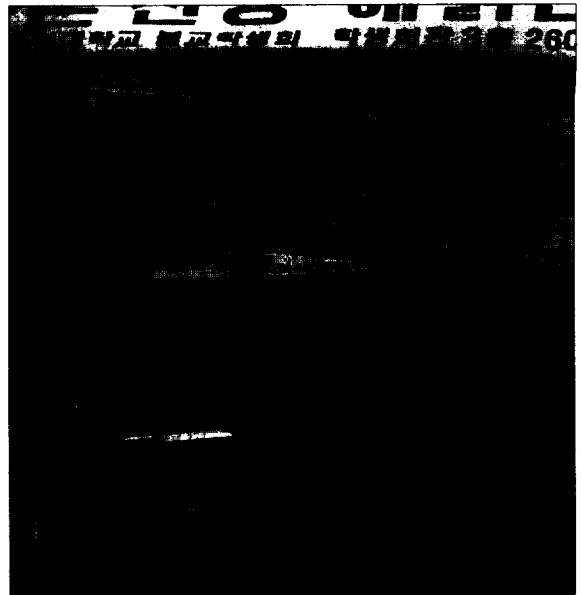
필자는 대학평가와 학부제로 요약되는 문민정부의 대학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이 한창 진행중이던 94년 가을에 전임교수가 되었다. 취직 첫 학기부터 필자가 경험했던 대학은 대학평가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장한 긴장감에 가득차 있었고, 평가를 받은 이후에도 학부제의 시행과 입시제도의 변화 등 계속되는 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 늘 동분서주하는 분위기였다. 그러한 변화의 취지에 동의하던 그렇지 않은 필자는 늘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고, 그렇게 적응해야 했던 대학의 전임교원 생활은 필자가 기대하던 것과는, 앞서

인용한 사회적 인식과도 많이 다른 것이었다.

대학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요즘 언론이 주도하는 '여론'은 대학과 대학교수가 가져야 마땅한 경쟁력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일부 교수들의 나태함과 부도덕성, 특권과 권위식을 비판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군사정권에서 고시준비생들로 가득찬 대학의 도서관을 TV로 비추며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인이 아니겠냐'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태도다.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안에서 고시준비를 하든, 만화책을 보든, 거리로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그들을 좋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대학교수가 얼마나 좋은 강의와 연구를 하는지는 묻지 않고, 무조건 학생들이 '많이' 듣는 강의를 하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학생들 취직 잘 되는 훈련만 잘 시키면 그것이 좋은 교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추진한 대학 경쟁력 강화의 철학은 한마디로 대학에서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학생이라는 소비자를 재주껏 끌어들이고, 교과과정이라는 상품메뉴를 그들의 입맛에 최대한 맞게 꾸며서 내놓으라는 것이고, 교육부의 일은 그 결과를 평가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그동안 대학의 현실을 많이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지만, 대학들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강의의 내용과 질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 부작용의 일부를 우리는 한 사립대학의 부도사태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부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많은 대학들이 이번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학의 기업화가 가져오는 문제점이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최근 대학에 대한 일련의 보도와 새로운 평가제도의 실시를 약속하는 새정부의 개혁방안을 보면 만일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경쟁력 담론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



문민정부에서 추진한 대학 경쟁력 강화의 철학은 한마디로 대학에서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덧붙여 대학교수 집단을 IMF식 구조조정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필자는 교육학이나 교육행정 전공자도 아니고, 수십 년의 교직경험으로 대학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권위있는 원로교수도 아니지만 건전한 상식과 대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대학교육의 한 담당자로서 단순한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대학교수 비판과 대학 개혁논리가 실제로는 대학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대학교수의 진정한 경쟁력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

어떻게 끼워 팔 것인가

대학교수가 일을 좀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는 연구와 교육에 좀더 힘을 쓰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문제는 대학교수의 연구와 교육이 그 단기적인 사회적 효용, 많은 경우 그 경제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학생들의 공부도 오로지 그것의 취업 관련성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데 있다. 가령 대학의 교과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는 학부제의 도입만 해도 그렇다. 학생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그 명분인데, 문제는 학생들의 관심과 선택 자체가 이미 원천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데 있다.

흔히 전공의 선택이 수능시험의 점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수능점수로 표시되는 전공 간의 서열만 철폐하면 전공선택이 학생 개인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취향과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적인 동기, 직업적 전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가 속한 영어영문학과는 이런 현실의 수혜자이자 피해자로서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어영문과는 과거에도 인기학과였지만, 학부제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생들이 사기를 원하는 상품은 '영어' 부문이지 '영문학'이 아니고, 따라서 영문학 교수들은 어떻게 '영문학'을 '영어'에 끼워 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익스피어를 읽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살찌게 하는가를 설명하는 대신 그것이 영어회화 공부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나를 강조해야 할 때마다, 내심 참으로 착잡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잘 팔리니 얼마나 좋으냐"는 식의 냉소적인 덕담을 하는 타과 교수들에게는 콩나물 교실의 그 살벌한 분위기가 내 수업을 얼마나 황량하게 만드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사치스런 엄살로 들릴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내 직업은 창의적인 감수성과 비판적인 판단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요즈음의 대학에서는 얼마나 순진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학부제는 인문정신의 실종

사실 요즈음의 대학생들은 예전의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한다. 휴강도 거의 없고, 결석도 거의 없다. 결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답답한 학생들에게, 개

근하는 학생은 매력이 없다고, 도대체 수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한 학기에 한두 번도 없는 대학생활이란 얼마나 지루한 일이겠냐고 은근히 부추겨도 요지부동, 저 선생이 지금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나 하는 표정으로 건조하게 바라본다.

그렇다고 그들이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했던 지난 시절의 대학생보다 더 자유로운가? 잡혀갈 염려없고, 휴교할 염려없으니 몸이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취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들의 정신을 훨씬 더 일찍부터 훨씬 더 확고하게 얽매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들은 대학 안에서 이미 사회인이 되어 있다. 대학은 다소 비현실적인 삶이 허락되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필자는 생각해 왔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을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지켜내던 보호막을 대학 스스로 거둬내고 있고, 그 결과 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 안전한 못자리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의 대학문화는 대학의 지나친 정치화로 불은시되었지만 자기만의 목소리를 간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가 빠져나간 요즈음의 대학문화는 대중 상업문화와의 공공연한 결탁으로 순수성을 잃거나 각종 직업강좌의 벽보들이 보여주듯 이악한 실용주의가 판을 치는 공간이 되었다. 예전의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부를 했다면, 요즈음의 대학생들은 훨씬 더 목적지향적으로, 모든 과목을 고시준비하듯이 공부하며, 그런 만큼 서로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하고 절박하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경쟁력의 실체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아니라 사실 별로 전문적이지도 못한 전문지식과 경직된 사고방식이다. 학부제라는 형식으로 도입된 시장원리가 가져오는 '자유로운' 전공선택의 결과는 소위 인기없는(따라서 비생산적인) 전공의 소멸이고, 인문정신의 실종이며, 대학교육의 직업훈련으로의 전락이다.

대학의 시장경제의 논리, 교수들 망천다

90년대의 대학생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대학생활을 하

뜻이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90년대의 전임교수직도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연구업적 평가제도에 자신의 연구일정을 맞춰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새 학회와 연구모임, 그들이 발간하는 출판물들의 급증은 연구활동의 객관적 증거를 생산해야 하는 교수들의 수요에 의한 것이다. 게다가 해마다 바뀌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고, 심지어 '우량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판촉활동'에서도 교수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부담 역시 대학에서 시장경제를 실현하려는 커다란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90년대 후반의 대학교수가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건'이 과거에 비해 더 좋거나 나쁘다거나, 대학 외부의 인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준다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진짜 문제는 연구활동을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으로 조절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발적이고 진지한 연구를 방해한다는 데 있다.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논문의 편수로 계량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풍토에서 그러한 업적들에 대한 평가가 엄밀하고도 공정하게,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은 또 얼마나 많은 교수들의 정상적인 연구를 방해하게 될 것인가. 게다가 아직은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되고 있지만 그러한 연구업적에 따라 월급을 결정하는 계약제/연봉제가 전 대학으로 확산된다면, 교수들의 연구는 문자 그대로 '돈벌이'가 되고 만다. 이러한 돈벌이의 현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가 나올 것인가.

사실 지금도 연구비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인문계 교수들에겐, 적어도 필자 자신에게는 참으로 모욕적이다. 한 달치 월급쯤 되는 돈의 사용 내역을 복사지 한 장, 연필 한 자루 산 대목까지 영수증 첨부하여 보고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아무리 적용하려 해도 그때마

다 분노가 치미는 것이다. 그렇게 연구자의 관리능력을 불신하면 그 결과물의 주장들은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가뭄에 콩나듯 하는 연구비의 관리제도가 그러할진대, 봉급체계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나라의 학문적 역량을 총집결한 사회적 집단의 성과물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는가. 화가 열 명을 고용하여 주어진 시간에 더 '잘 팔리는' 그림을 더 '많이' 그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고 한다고 해서 화가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진정으로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보는가. 연구업적을 단순하게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그것을 금전적 보상과 직접 연계시키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교수들끼리 경쟁은 시킬 수 있을 망정, 진정한 경쟁력은 고갈시키고, 진지하고 자발적인 연구의지는 좌절시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교수들의 연구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기준은 시장경제의 계량적 원칙이 아니라 학문적인 수월성이라는 학문적 기준이어야 한다.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을 전혀 다른 종류의 특별한 노동으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것은 애당초 가망없는 요구사항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산업사회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예술가와 시인들은 자신의 작업이 공장노동과 어떻게 다른지를 묵놓아 외쳐왔지만 여태껏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영국의 시인 워즈워스는 자신이 다녔던 케임브리지 대학을 회고하며 자신이 비록 학교공부는 게을리했지만 "상상력을 당당하게 발휘"하고 "태산같은 자유"를 누렸다고 말한 바 있다. 90년대의 우리 대학에서 그러한 의견을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심지어 무책임한 일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필자의 형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네가 바쁘다면, 나는 벌써 여러 번 순직했겠다". 그런 형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형님, 나도 알고보면 꽤 바쁘답니다. 그리고 공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는 형의 얼굴이 벌써부터 떠오른다. ■